

고향의 황토흙집에서 풍류가 흐르는 제2의 인생 설계

송희정 · 이현 부부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섬진강을 가로막아 생긴 호수 옥정호 부근에는 아름다운 황토흙집이 하나 있다.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외딴 산골에 자리 잡은 송희정(54세) 씨의 토담집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눈길을 사로잡기 십상이다. 일(一)자 형태의 평범한 기와집인데,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21세기 인들이 살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거쳐 산뜻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원래부터 흙벽이었겠지만 색깔이 진한 황토 흙으로 덧칠했고, 어쩔 수 없이 시멘트를 써야 했던 부분은 황토 빛으로 페인팅 했다. 여닫는 격자형 창호지 방문들도 현대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려 쓴다. 이 집 주인이 가능하면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 까닭이다. 그래서 각 방마다 문틀의 높이가 짧아 보통 키박에 안 되는 사람도 드나들 때 이마를 조심해야 한다.

토속적인 예술미 물씬 나그네들 눈길 사로잡아

집주인 송씨의 말을 들어본다.

“문틀을 고칠 생각도 해봤지만 몸을 낮추고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대로 살렸지요. 들어가실 때 머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장도 평평하지 않았다. ‘ㅅ’자형의 지붕 모

양을 따라 움푹 꺼진 공간이 살아 있었다. 상량을 중심으로 양쪽에 걸쳐진 서까래와 대들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채 사이사이 붉은 황토흙으로 깔끔하게 덧칠되어져 있었고, 바깥의 마루 위 천장도 마찬가지였다. 밑에서 쳐다보면 거북의 등처럼 거미줄 형상으로 온통 틈이 갈라져 보이는데, 젖은 황토흙이 마르면 수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나름대로 멋있는 예술로 느껴졌다.

불을 지펴서 방도 데우고 밥도 할 수 있도록 방 바닥보다 훨씬 낮춰야 했던 재래식 부엌은 아쉽게도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가스레인지 불로 식사준비를 하는 요즘의 방식대로 생활해야 하기에 부엌은 입식으로 대폭 개조됐다.

“정지(부엌)에 흙을 얼마나 채워 넣었는지 모릅니다.”

송씨가 부엌을 방바닥 높이와 똑같이 만드느라 흙을 퍼 날랐던 손수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부엌 한 쪽은 벽으로 막아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었다. 대신 천장의 서까래에 묻은 그늘음은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궁이에 생나무를 때며 밥을 할 때는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 흘려야 했던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닌 것 같



옛 사람들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소품 들



옛 생활도구와 아궁이를 그대로 살려서 생활하고 있음

은데, 어릴 때의 추억이 잠깐 스쳐 지나간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차 한 잔 얻어먹으며 쉬어가기도

마당은 금잔디를 입히고 삿갓 없는 삿갓에서 섬돌까지 21개의 반반한 돌을 박아놓았다. 징검다리 같지만 잔디 사이에 바닥과 같은 높이로 박혀 있어 헛딛어도 상관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도 없다. 삿갓 앞에는 세상과 소통하는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지나간다. 종종 걸가는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집을 구경하고 쉬어간다고 했다. 맘씨 좋은 주인장은 기꺼이 사랑방으로 안내해 차를 대접한다. 때로는 낯모르는 나그네를 재워주기도 한다. 그의 사랑방에서는 통유리를 통해 정원과 지나가는 차들과 계곡의 아름다운 숲이 다 보인다.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 누구나 신선이 된다. 그의 아내가 함께 있는 시간에 방문하는 손님은 가야금을 한 곡조 듣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다. 송씨의 아내 이현(51) 씨는 취미로 즐기는 가야금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씨는 정읍시내에서 식당을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가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은 귀신이라도 나올 정도로 흉가로 방치돼 있었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훌륭한 전원주택으로 지을 수도 있으면만 송씨는 일형을 보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거 그의 할아버지가 문중의 산을 지키며 살았던 집이어서 고인의 흔적이 묻은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2005년 2월 28일 서울에서 내려온 송씨는 묵은 때를 벗겨내고 집을 손보기 시작했다.

“집수리비는 1천5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나다. 밤마다 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연구하고 생각나면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려 집을 다시 손보곤 했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을 불러다 수리했습니다.”

송씨는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며 한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1996년 그만두고 서울에서 친구와 같이 사업을 했다.

“발효사료를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잘 되었죠. 하지만 한창 잘 될 때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되지 않았다면 저는 내려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귀향 후 첫 성과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그는 작년에 토종별 3통으로 시작해서 올해 25



사랑방에서 내다 보이는 뒷산 풍경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통으로 늘렸다. 별이 적성에 맞는데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 좋다고 했다. 감나무도 600주를 심었는데, 작년 겨울 워낙 추워 100주만 살아남았다.

“죽은 감나무를 다시 살려야겠어요. 감나무는 품이 안 들고 약도 칠 필요가 없습니다. 5년 후부터 수확하게 되면 곳감으로 만들어 팔 수 있어 훌륭한 소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귀농 2년차인 송씨는 연습 삼아 토마토와 가지, 오이 등을 심었다며 유기농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과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농사를 3년은 배워야 한다는데, 내년에는 자신합니다. 고구마는 번식력이 강해 풀과 싸워 이기지만 다른 작물은 김을 매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더군요.”

그는 폐가를 고친 후 자신만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농토도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산골마을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가 얻어낸 첫 성과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었다.

“작년에 중성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았고, 올해는 설계까지 나와 곧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산골을 방문할 도시의 아이들을 위해 많

은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저 위 산 너머 1천 평이 넘는 논이 1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아 지금은 숲이 되어 버렸습니다. 늘지 체험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는 폭포도 있고, 산길도 좋아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또 이 산꼭대기에는 천문대도 짓고 싶습니다. 밤에는 별이 정말 좋습니다. 외등을 끄면 별빛만으로도 밝죠.”

또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아내가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도록 바로 집 맞은 편 계곡의 평평한 터를 야외음악당으로 조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리꾼들이 와서 맘껏 득음도 하고 관객들 앞에서 공연도 하게 할 계획이란다.

큰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고려대 고고미술학과를 다니는 둘째 딸이 가끔씩 일이십 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한 부대씩 이끌고 내려와 시골집을 자랑한다. 좁은 집에 다 재울 수 없어 마을 회관까지 숙소로 빌리지만 그래도 부러움을 사는 딸의 아버지로서 아름다운 고향의 산천경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대견하기만 하다.

송씨의 귀향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중성리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㉞